

중동발 '에어쇼크'에 광주·전남 여행업계 '고사 직전'

무안공항 폐쇄 장기화·유류할증료 33단계로 폭등 여름 성수기 앞두고 예약 문의 감소·취소 잇따라

#1 광주지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이맘때면 여름휴가를 대비한 해외여행 문의전화량이 이어져야 하지만 올해는 이틀에 한 번꼴로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 이마저도 항공 유류할증료 인내가 이뤄지면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끊기는 것이 다반사다. A씨는 "코로나 19 시기보다 더 힘들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예약 문의가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2 40대 여행사 대표 B씨는 최근 연이어 당초 예약된 여행 계약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유류할증료 인상이 현실화하면서 부담을 느낀 고객들이 잇따라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 B씨는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같은 항공편이라도 발권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로 여행객 사이에서는 차라리 여행을 미루겠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에어쇼크'(Air Shock)에 따른 광주·전남지역 여행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참사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유가·고환율, 중동전쟁에 따른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인해 여행을 계획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33단계가 적용되며 불과 두 달 전 6단계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이 가파르다. 국내선도 편도 기준 4월 7700원에서 5월 3만4100원으로 4.4배 치솟았다.

또 항공유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텍사스·루이지애나 등에서 거래하는 항공유 현물 가격이 지난달 24일 기준 갤런당 4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첫 거래일(1월 2일) 갤런당 1.9달러와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해 항공운임에 별도 부과하는 추가 요금으로, 항공사·노선·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관련 여파로 실제 대한항공의 중국 청다오, 일본 후쿠오카와 같은 단거리 노선 유류할증료는 3월 편도 1만3500원에서 5월

7만5000원으로 뛰었고,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은 3월 9만9000원에서 56만4000원까지 폭등했다. 유류할증료 급등 여파는 여행 경비가 치솟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소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항공권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객들의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앞서 예약과 발권까지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고 예약만 진행된 경우 취소도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휴가를 계획하는 급감, 간접 영향권에 놓은

여행사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여행사들은 앞서 확보한 항공권 등을 이용해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준비해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고유가 상황이 여름 성수기까지 지속된다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름휴가는 보통 5월부터 예약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가뭄에 콩 나듯' 예약 전화가 온다"며 "유류할증료의 적용을 덜 받는 상품으로 예약 유치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분명 지역 여행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태양광 인버터 산업 협의회 출범 한전·기업·연구·학계 공동대응

한국전력공사가 태양광 산업 핵심 설비인 인버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국전력은 최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와 함께 '태양광 인버터 산업 발전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발족식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 부사장을 비롯해 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OCI파워, HD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한 산업계 대표 50여명 등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의회 출범은 한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제조사들과 진행해 온 릴레이 면담과 정책 간담회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태양광 인버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한전은 '보안 강화형 차세대 태양광 인버터' 개발 계획과 함께 한전 기술지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 유망기업 발굴·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중기부, 광주서 청년 창업열기 띄웠다

한성숙 장관 전남대서 현장 목소리 청취... '모두의 창업' 독려

정부가 청년들의 창업 열기를 북돋우기 위해 발로 뛰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한성숙 장관이 광주지역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확산을 위해 잇따라 지역을 방문,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8일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모두의 창업' 캠퍼스 현장 방문하고,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15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마감일을 앞두고 대학 캠퍼스를 찾아 모두의 창업을 알리고, 보다 많은 청년들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전남대학교 출신 선배 창업가와 창업에 도전하려는 예비창업자 학생들이 토론자와 청중으로 참여해 창업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또 모두의 창업에 대한 의견, 창업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첫발을 내디딘 여러분 모두가 이미 국가창업시대의 주인공"이라며 "도전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15일 오후 4시까지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스마트인재개발원, AI 실무교육 통했다 언어지능 기반 분석모델 개발자 과정 취업률 100% 기록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언어지능 기반 분석서버 모델 개발자과정' 1회차 수료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고용노동부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총 6개월간 1040시간 규모의 집중 실무교육으로 운영됐다. 특히 데이터 활용 역량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 능력,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무엇보다 수료생들의 취업처가 대부분 IT·디지털 분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

미를 더한다. 언어지능 기반 분석서비스 분야는 AI 기술 이해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협업 경험까지 요구되는 영역으로, 실무형 프로젝트 경험이 취업 경쟁력으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수료생들은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는데 실제 교육생 후기에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과 강사진의 밀착 지도, 질의응답 중심 수업, 취업 준비 지원 등이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앞서 '데이터디자이너 양성과정' 2회차와 'DCX 기반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개발자 과정' 14·16회차 등에서도 취업률 100%를 기록한 바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로또 645

16 18 20 32 33 39

1223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원

제122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6, 18, 20, 32, 33,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8억575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103명으로 각 480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481명으로 14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196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1만6882명이다.
연합뉴스

컨벤션홀 임대

- 📍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광남일보 사옥 1층)**
-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임대문의 : 062)370-7080